

운동하는 일반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위한

학교체육정책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편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목 차

제 1장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인성, 건강 및 학력의 관계 분석	1
I. 스포츠참가 청소년의 인성 평가도구 개발	2
II.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 내용 분석	6
III.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 효과성 탐색	11
IV.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특성과 인성, 건강, 학력수준의 차이	16
제 2장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체육복지 요구 조사 및 학교체육복지 방향 설정	22
I. ‘복지’와 ‘학교체육복지’의 등장	23
II. 학교체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 정립	25
III.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체육복지 요구 조사	29
IV. 학교체육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35
제 3장 학생선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41
I. 체육특기자 제도와 학습역량 연계의 필요성	42
II. 체육특기자 제도와 학습역량 연계 방안	43
III. 제도 연계에 필요한 중요 평가요소 선정	46
IV. 학생선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50
V.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탐색	55
VI.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향후 방안과 과제	58
제 4장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실태와 향후 과제	60
I. 학생선수 진로교육은 왜 필요한가?	61
II. 현재 우리나라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실태는?	65
III.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77

제 1장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인성, 건강 및 학력의 관계 분석¹⁾

차은주²⁾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약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일반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교폭력의 문제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체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인성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학교의 인성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에서 전담해온 경향이 있어왔지만, 현재는 기존의 교과 교육 뿐 만 아니라 비교과교육에서 의도된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덕목과 내용, 체제는 시대의요구와 가치, 미래 비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육 교과목에 알맞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와 내용을 현시점과 미래 지향의 방향에서 재점검하고 시대에 적합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들의 인성 특성과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 구성 특성, 인성프로그램 참여 후 인성의 변화, 성별과 학급별, 지역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간별, 참여 정도별, 행복수준별, 성적수준별, 건강수준별 나타나는 인성 수준을 파악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의 효과성과 건강과 학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본 내용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차년도 연차보고서의 내용과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발표된 차은주, 김영재, 허정훈(2013)의 '스포츠참가 청소년의 인성 평가도구 타당화 검증' 및 차은주(2013)의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 효과성 탐색' 논문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2) 차은주 박사는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2년 8월까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학생선수의 진로연구를 전담하였으며 현재는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I. 스포츠참가 청소년의 인성 평가도구 개발

최근 글로벌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적 생활에 적합한 태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2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인·학부모·교사 모두는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성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풍토는 청소년들을 성적중심의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있어 갈등과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등 교우관계의 부정적 경험 등은 긍정적인 인성형성을 가로 막고 있어 학생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은 많은 점이 부족한 실정이다³⁾.

1. 인성의 개념 및 특성

인성(personality)은 인간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품성으로 한 개인의 독특한 심성과 행동양식이다⁴⁾. 그동안 인성교육은 도덕과 윤리와 같은 특정 교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성이 도덕적 측면의 가치와 사회적 측면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⁵⁾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인성교육이 범교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인성은 성격, 기질, 인격, 성격 등으로 개념이 광범위하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 힘들뿐 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결과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인성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인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해 인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3)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스포츠(체육) 영역 창의 인성 수업모델 개발: 신체활동 창의 인성 매트릭스(matrix) 접근.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책연구.

4) 박성미, 허승희(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21(3), 35-47.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5) 최영준, 최만식, 문익수(2002). 대학운동선수, 체육전공학생 및 일반학생의 인성에 관한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1(2), 99-107.

2. 스포츠참가로 인한 인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

전면적인 학교스포츠클럽정책의 시행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09)⁶⁾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스포츠참가는 스포츠맨십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긍정적 정서를 갖게 하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⁷⁾.

청소년의 인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성의 다양한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변화로 인해 21세기에 인간 삶을 고려한 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요인으로 관계성, 도덕성, 전일성, 영성, 생명성, 창의성, 민주시민성이 제시되었다⁸⁾. 또한 미국의 인성교육 덕목은 신뢰, 타인존중, 책임감, 공정·정의, 배려, 시민정신,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으로 제시하고 있다⁹⁾.

한편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성의 덕목을 조사한 결과 도덕적 인성(공정성, 정직성, 존중심, 준법정신, 책임감)과 사회적 인성(대인관계, 리더십, 양보, 예의, 용기, 인내심, 자기희생, 충성심, 합리성, 협동심)이 보고되었다¹⁰⁾. 또한 박정준(2012)¹¹⁾은 체육에서 나타나는 인성을 스포츠맨십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인성(성실, 협동), 도덕적 인성(정직, 배려)으로 제시하였다.

3. 스포츠참가 인성 평가도구의 필요성 대두

이와 같이 인성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인성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참가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6)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7) 김병준, 성창훈(1996). 스포츠 동기요인으로서의 재미: 개념 및 관련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2), 99-122. 전용진, 손천택(2006). 중학생이 체육수업에 체험하는 정서경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2), 119-137.

8) 강선보, 박익수, 김귀성, 송순재, 정운경, 김영래, 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

9) 안범희(2005). 미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 및 특성 연구. 인문과학연구, 13, 133-169.

10) 박종길, 김승재, 문창일, 문인수(2004).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인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4), 107-122.

11) 박정준(2012). 스포츠맨십의 발달 수준과 영역에 관한 경험적 탐색: 중학교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0(3), 221-246.

타당한 도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스포츠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즉, 올바른 인성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인성교육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스포츠참가 인성 요인의 탐색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과정을 거쳐 인성 평가도구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전남, 강원지역의 중·고등학생 총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서울, 경기인천지역의 총 506명(남 255명, 여 251명/ 중학생 345명, 고등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서울, 경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대상 외에 추가로 표집된 서울, 강원, 전라지역의 청소년 총 513명(남 261명, 여 252명/ 중학생 251명, 고등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26명(남 23명, 여 3명)에게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K고등학교 학생 11명과 경기 Y중학교 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로 인한 변화에 대해 포커스그룹면담을 실시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인성 요인을 탐색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체육교사 12명(스포츠철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박사 전공자 포함)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다른 요인과 비슷한 요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통합하는 과정과 내용 타당도 검증(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실시 후 문장의 어색한 부분과 난이도를 수정하여 책임감(6문항), 자신감(6문항), 협동성(6문항), 규율준수(6문항), 긍정적태도(6문항), 자기희생(5문항)의 6요인 35문항으로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를 전화로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 수집의 협조를 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련의 통계적 절차를 거쳐 다음의 <표 1>과 같이 4요인 18문항인 자신감(5문항), 공동체의식(4문항), 자기희생(4문항), 긍정적태도(5문항)으로

스포츠참가 청소년의 인성 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인성 평가도구 타당화를 통해 스포츠참가 청소년의 인성 평가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요구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표 1. 스포츠참가 청소년의 인성 평가도구

요인	문항내용
자신감	1.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3.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높은 목표를 위해 도전한다. 4.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다. 5.주변의 몇몇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	1.평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다. 2.나는 학교(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내 역할을 하고 있다. 3.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의 자기역할이 중요하다. 4.학교규칙을 잘 지킨다.
자기희생	1.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한다. 2.내가 속한 팀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한다. 3.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맡아 할 수 있다. 4.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긍정적태도	1.좌절을 경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2.나는 타인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한다. 3.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안다. 4.원하는 결과를 위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인내하고 견뎌낸다. 5.화나는 일이 있어도 친구(타인)에게 먼저 다가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다.

*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

II.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 내용 분석

그동안 스포츠 참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공격성, 충동성 등을 해소하여 인성함양의 긍정적 사례로 보고되면서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스포츠 참가를 통한 청소년의 인성함양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의 방향으로 주목되었으나 스포츠를 통해 어떠한 인성을 함양시켜야 하는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¹²⁾. 즉, 스포츠를 통한 인성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 자체가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활동으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한 인성프로그램의 제시는 부족하며 몇몇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인성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인성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¹³⁾. 또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도덕, 사회, 가정 등의 교과분야에서도 프로그램의 실천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¹⁴⁾. 하지만 스포츠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타 교과목들과 분명한 차이를 지니며 타 분야의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적 역할을 수행한다¹⁵⁾.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한 인성프로그램의 구성요인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2012)¹⁶⁾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창의경영학교 학교체육활성화 중점학교로 선정한 학교의 인성함양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

12) 박정준(2012). 통합적 스포츠멘십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스포츠멘십 형성 유형과 양상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93-116.

13)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스포츠(체육) 영역 창의 인성 수업모델 개발: 신체활동 창의 인성 매트릭스(matrix) 접근.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책연구.

14) 이대성(2013). 학교폭력문제의 사회과 교육적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회복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제20권 제1호, 67-86.

15) 이석훈(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여가의 뉴 프레임; 학교스포츠클럽.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31-38.

16) 대한체육회(2012). 2012학년도 체육교육 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매뉴얼. 대한체육회.

1. 인성 프로그램 내용 분석

창의경영학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로 인성 함양에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춘 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성 프로그램 계획서와 활동자료집을 분석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을 거쳐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검증하였다.

- ▶ 지도교사 5명(남 4, 여 1)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함
- ▶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은 연구1(차은주, 김영재, 허정훈, 2013)¹⁷⁾에서 도출한 스포츠참가 인성 평가 4요인(긍정적태도, 자신감, 공동체 의식, 자기희생)의 개념을 분석 틀로 사용함

각 학교의 주요프로그램과 인성프로그램 운영 특성에 따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 Y중학교 (2012년 선정)

구분	세부내용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동행전력투구 · 부자부자캠프 · 다양성존중 마라톤 대회 · 관람스포츠(학교 상벌점제 고려)
인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종목 리그(탁구·축구·농구·플로어볼·배드민턴) · 1인 1종목 반대표로 참여(존중감 향상) · 스포츠기능이 취약한 학생을 위해 경기규칙 적용(돌봄) · 스포츠 분쟁위원회 설치(화해, 상호존중감, 소통) · 학생들과의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 동아리 팀 계약서 작성(책임감, 규칙준수, 협력 사항 준수) · 자발적인 스포츠클럽 개설 및 자치적 클럽 운영 관리 ·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시간 조절 · 정식 스포츠 시설 환경 조성으로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함

17) 차은주, 김영재, 허정훈(2013). 스포츠참가 청소년의 인성 평가도구 타당화 검증. 한국 체육과학회지, 22(2), 361-373.

◎ 전남 Y고등학교 (2011년 선정)

구분	세부내용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종목 리그(축구 · 농구 · 배드민턴 · 탁구) · 뉴스포츠(플로어볼 · 킨볼 · 하노이 타워)
인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요구에 의한 자발적인 스포츠클럽 개설 및 자율적 경기운영(경기 일정 조정 및 선수 선발, 작전계획, 클럽회장 선발) · 졸업 후 동문의 경기 참여 · 뉴스포츠로 학생들의 참여 유도(시간과 공간 활용) · 클럽 운영 내규에 봉사활동 병행 조항 삽입 · 클럽 간 월 2회 리그전, 4주째 월말 대회 개최(22개 클럽) · 클럽 커뮤니티 운영(개인, 단체 사진 촬영) · 학교리플렛 제작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서울 K고등학교 (2011년 선정)

구분	세부내용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운동 프로젝트 제작 · 7종목 리그(농구 · 배드민턴 · 풋살 · 야구 · 발야구 · 피구 · 여자축구)
인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학생 위원회 조직 및 자치적 클럽 운영 관리 · 관람스포츠 참여(축구) · 인성의 중요성과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 · 스포츠행사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 스포츠관련 강연 참여로 스포츠의 긍정성 인식 고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영어 신문제작 · 스포츠 참여에 대한 교내 및 교외 글쓰기 공모전 참가 · 운동 프로젝트 활성화 운동(QR코드 제작)

◎ 전남 S 고등학교 (2012년 선정)

구분	세부내용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발달 스포츠(탁구, 축구) · 4종목 리그(태권도 · 수영 · 1.5km달리기 · 볼링) · 나도 멀티스포츠맨!(배드민턴)
인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동행 프로그램 실시 · 방과 후 매일 태권도 수련(‘仁, 義, 禮’ 프로그램) · 스포츠 백일장 대회(공모분야 : 시, 수필, 논설문) ·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을 통해 학생 참여율 증진 · 활동결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스포츠 명예전당) · 스포츠활동 인증 우수 학생 및 스포츠클럽 선정 시상 · 스포츠 학생 위원회를 조직 및 자치적 클럽 운영 관리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홍보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제작

◎ 인천 S고등학교 (2012년 선정)

구분	세부내용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특기 갖기(태권도) · 6종목 리그(배드민턴 · 농구 · 스쿼시 · 야구 · 축구 · 탁구)
인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생 태권도 단증 취득 목표(예절, 바른자세, 인내심) · 사제동행 태권도 수련(체육교사) · 자율적 클럽 개설 및 운영(심판, 기록, 경기운영 등) · 커뮤니티 공간 마련하여 상호교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 시행 · 희망 스포츠클럽 개설 유도

2.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 구성 특성

5개 학교 인성 프로그램의 스포츠참가 인성요인에 대한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공동체의식 요인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동체의식 요인의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신감 요인이 26.2%, 긍정적태도 요인이 24.6%, 자기희생 요인이 18.5%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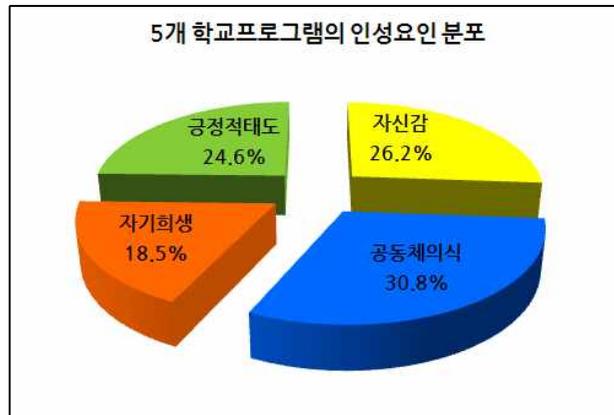


그림 1 . 5개 학교 프로그램의 인성 요인 분포

다음으로 각 학교 프로그램의 인성 요인의 구성 특성을 <그림 2>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인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경기 Y중학교의 공동체의식 요인이 가장 높았고 인천 S고등학교의 긍정적태도 요인 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Y중학교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여 신문에 보도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와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공식적으로 보고된 학교폭력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사례였다. 따라서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현장에 적용한다면 경기 Y중학교의 사례처럼 학교분위기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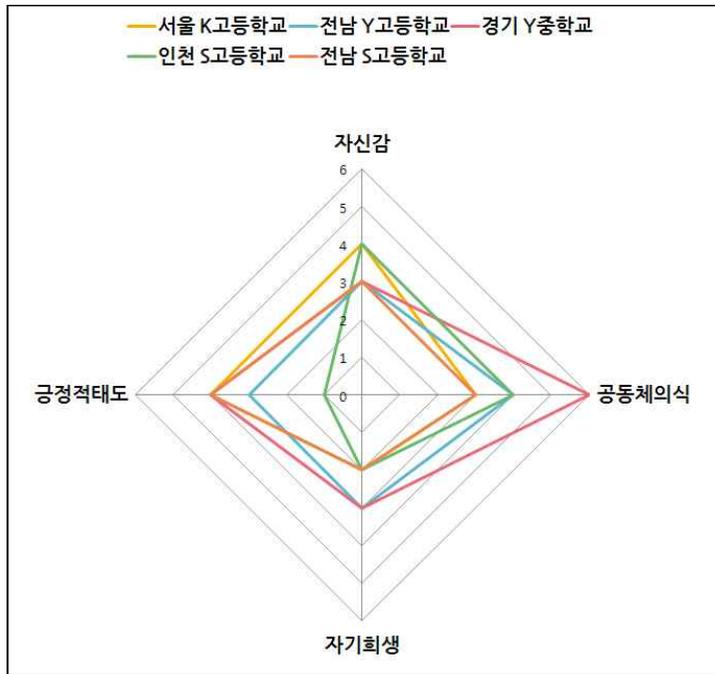


그림 2 . 각 학교 프로그램의 인성 프로그램 구성 특성

Ⅲ.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 효과성 탐색

학습자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필요성이 인식되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의 실천과 정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⁸⁾¹⁹⁾²⁰⁾.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대학 진학 후에도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회 진출 후에도 부적응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는 개개인이 쌓을 수 있지만 특히 인성함양은 사회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능력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사회적

18)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19) 서민철(2012). 인성교육의 윤리학적 기초로서의 덕윤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217-241.

20) 왕석순, 김성교(2011). 감사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교육의 인성교육 내용 분석. 실과교육연구, 17(1), 117-142.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년 시범 사업부터 현재까지 활기찬 학교분위기 만들기,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 7월 개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2013)²¹⁾는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건전한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 모델을 확산 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에 시행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1.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 참여 그룹의 비교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여부에 따른 인성 수준 비교를 위해 인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5개교(연구문제2에서 제시된 학교)의 학생과 학교스포츠클럽 일반 프로그램 및 학교스포츠클럽 미참여 학생을 임의표집 하였다.

- ▶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 참여 그룹
: 총 291명(남 249, 여 42/ 중 22, 고 269)
- ▶ 일반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참여 그룹
: 총 245명(남 141, 여 104/ 중 180, 고 65)
- ▶ 학교스포츠클럽 미참여 그룹
: 총 183명(남 67, 여 116, 중 58, 고 125)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청소년의 인성의 수준은 모든 그룹에서 평균 이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인성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인성이 다른 그룹에 비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성그룹>일반그룹>미참여그룹**).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 참여 그룹의 공동체

21)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교육부 2013 대통령 업무보고.

의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미참여 학생그룹의 자신감 요인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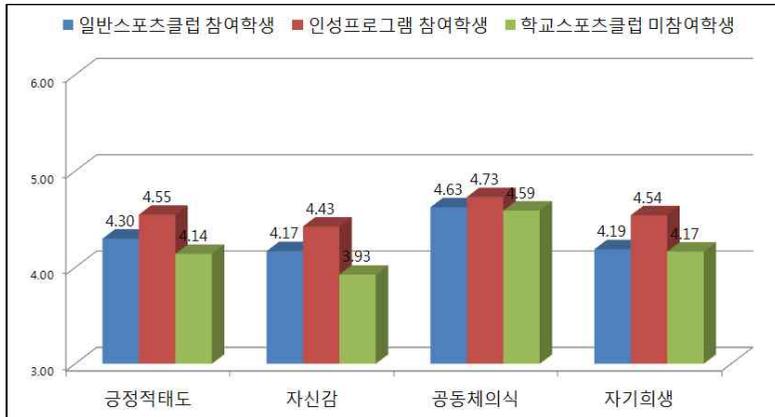


그림 3.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성 요인의 평균 비교

2.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 참여 그룹 및 지도교사의 심층면담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 5명(남 4, 여 1)과 학생 8명(남 5, 여 3)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후 변화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 학교폭력의 감소

인성 프로그램 적용 이후 학교폭력사건이 현저히 감소되었음

신문에 기사화 될 만큼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1년여에 걸린 인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식적인 학교폭력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실제로 가까이에서 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경기 Y중학교, 홍교사)

○ 상호 친밀성 증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간의 관계 향상되고 친밀성이 높아짐

수업시간외에 아이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경기가 끝나면 SNS로 서로 격려도 하고...개인적으로 힘든 얘기도 와서 하나 까 정말 저를 많이 의지하고 믿어요(조*혁, 학생)

○ 클럽의 명예를 위한 노력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모범이 되는 클럽이 관심을 받으면서 소속된 클럽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남

학교에서 누가 문제가 되면 어느 클럽 소속이냐 이러면서 클럽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우리 클럽 애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요...한 사람 때문에 클럽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되니까요(박*준, 학생)

○ 소속감 및 자신감 증가: 사회적 자산

소속감이 생성되고 자신감과 책임감이 증대되고 친구와 선배, 후배와 같이 클럽활동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고 있음

그전에도 친구들은 있었지만 클럽 친구들 하고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는 분야(스포츠)가 같으니까 말도 잘 통하구요...잘 안되면 속상하지만 서로 격려도 많이 해요...같이 운동하면서 선후배랑 친해지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든든해졌어요.(홍*정, 학생)

클럽 대표를 맡아 운영하면서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 경기규칙이나 방법을 알려주면서 뿌듯함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요(김*정, 학생)

○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생활태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후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자신감 향상, 적극적인 태도 및 자발적, 능동적 행동이 향상됨

부모님이 깨우지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니까 좋아 하시죠.. 매일 아침마다 저를 깨우셨는데 스스로 일찍 일어나요. 학교 오면 제일 먼저 체육관으로 와요(전*환, 학생)

○ 목표의식 형성 및 학업성적의 향상

학교스포츠클럽 가입 후 미래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생겼으며 이러한 목표는 생활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적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음.

클럽에 참여하기 전에는 목표가 없었는데 무엇보다 목표가 생겼어요. 체육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졌고...학업을 소홀히 하면 안되니까 공부에 목표가 생겼어요(이*림, 학생)

성적이 정말 많이 올라서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들 놀랐어요..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올랐는데 제가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시험 준비 할 때 클럽 팀원하고 같이 해요(홍*준, 학생)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 형성

학교스포츠클럽 인성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자원봉사를 경험하면서 사회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게 되어 구성원으로서 의식이 형성됨

외부 클럽 경기에서 보조원으로 참석하는 자원봉사를 했는데 내가 사회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구나 대견했어요..나도 무엇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에요(김*창, 학생)

결과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인성 프로그램 참여 후 관계성 향상과 친밀성의 변화, 학교폭력의 감소, 클럽의 명예를 위한 노력, 자신감 및 소속감 형성, 목표설정과 학업성적 향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식 형성 등의



그림 4. 인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변화 요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 Y중학교의 학교폭력 감소 사례’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는 <연구문제 2>의 경기 Y중학교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결과에서 “공동체의식” 요인이 다른 학교에 비해 가장 높게 구성된 것과 일치하므로 학교폭력 감소와 인성 프로그램의 의도적 시행에 시사점이 있다.

IV.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특성과 인성, 건강, 학력수준의 차이

인성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로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으로 간주되는 사회성의 핵심개념이다. 재미있게도 인성은 선천적인 것을 포함하면서도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적 역할도 개입된 다소 안정적인 도덕적 성향이라고 말한다²²⁾.

22) 김미진(2012).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술교육과 치료적 교수법 접목 효과성에 관한

학교스포츠클럽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체육수업시수 확대, 모든 중학생이 학교 스포츠클럽 1개 이상 가입 등 비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됨으로써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체육활동 확대관련 대책의 시행은 유보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그동안 체육수업에서 성별, 학급별에 대한 연구에서 Francis(2000)²⁴⁾는 체육교사에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피드백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체육수업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⁵⁾²⁶⁾. 인성교육에서 성별과 학급의 차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효과에 대한 성별, 학급,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맞춤형 인성교육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그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중·고등학생 1,458명(남 688명/여 770명)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유형과 인성 특성을 통계적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3) 유성렬(2012). 학교폭력에 대한 단상, 청소년문화포럼, 30, 165-169.

24) Francis, B. (2000). Boys, girls and achievement: Addressing the classroom issues. London: Routledge.

25) 전용진, 손천택(2006). 중학생이 체육수업에 체험하는 정서경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2), 119-137.

26) Dismore, H. & Bailey, R. (2010). It's been a bit of a rocky start: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following transi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5(2), 175-191.

1. 학교스포츠클럽 참여특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

○ 인성은 남학생 및 고등학생 그룹이 모든 요인에서 높게 나타남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성의 수준의 높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인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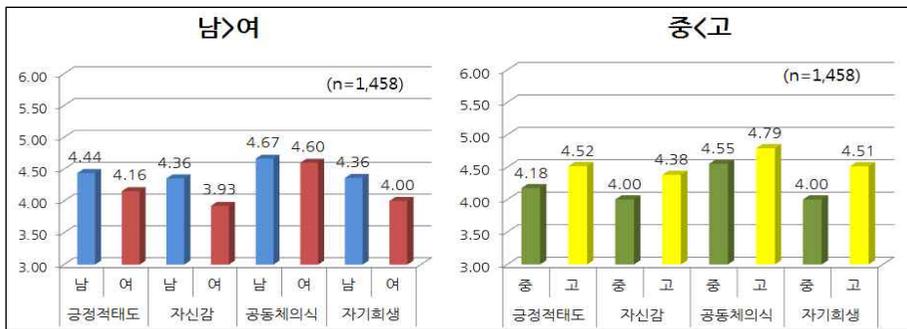


그림 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인성의 차이

○ 참여지역에 따른 인성 수준은 차이가 없음

서울, 경기·인천,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공동체의식 요인이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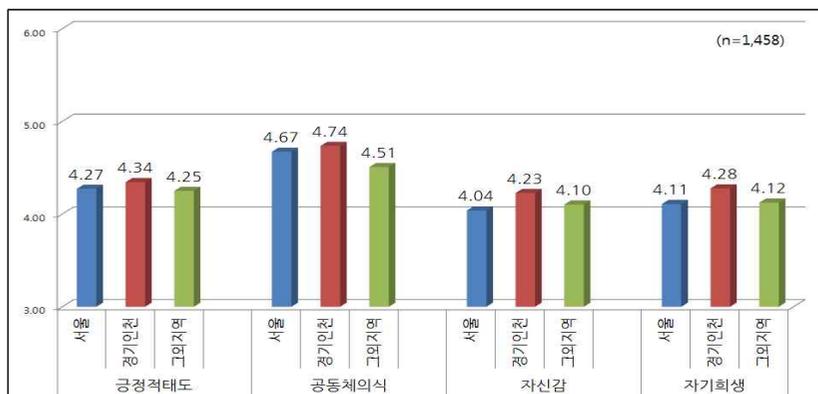


그림 6. 지역별 스포츠참가 인성의 차이

- “주3회 이상 참여” 그룹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음
 학교스포츠클럽 참가빈도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각 요인에 주3회 이상 참여시 인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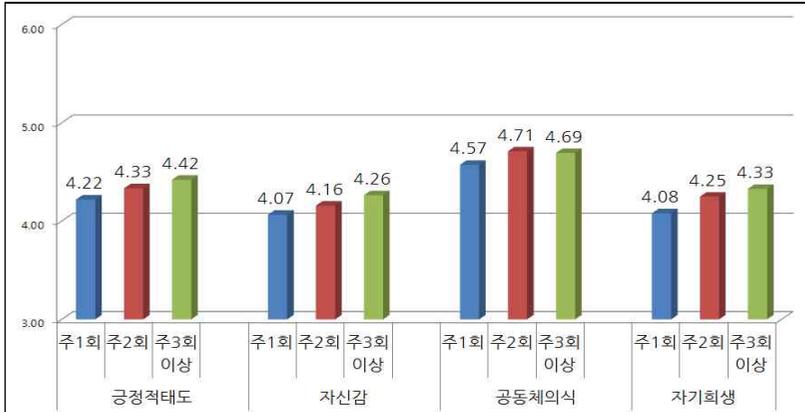


그림 7.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빈도에 따른 인성의 차이

- ‘1년 이상 참여’ 그룹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음
 참가기간에 따른 인성의 차이는 ‘1년 이상’ 참여 학생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았음. 특히 공동체의식은 ‘1년 이상’ 참가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6개월 이하’ 참여 학생은 자신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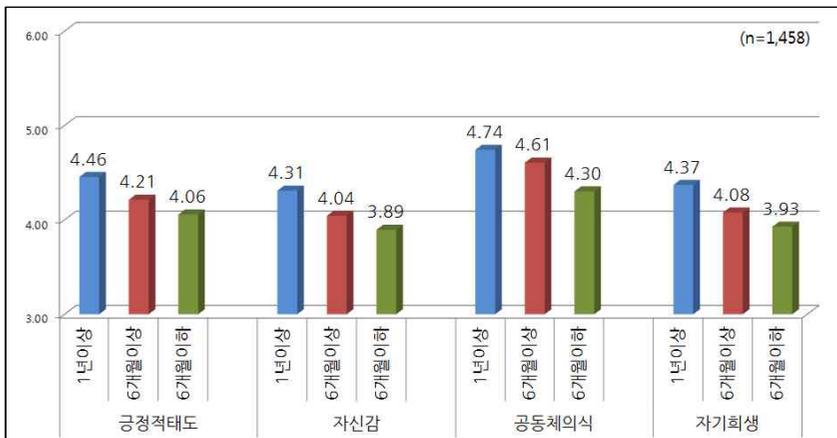


그림 8. 참여기간에 따른 스포츠 참가 인성의 차이

○ ‘매우 열심히 참여’ 그룹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음

참가정도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매우 열심히 참가’ 하는 그룹의 인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에서 인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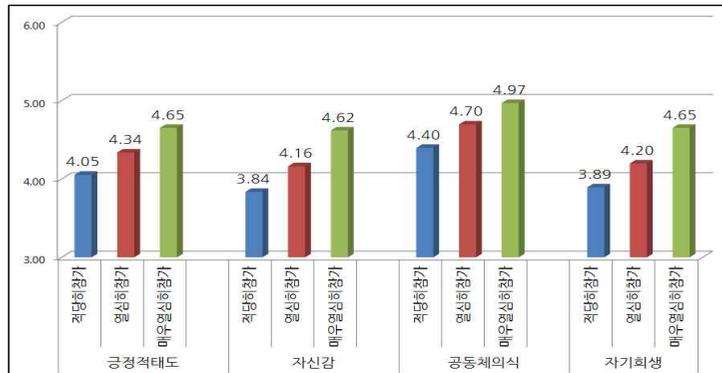


그림 9.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정도에 따른 인성의 차이

2.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

○ ‘성적이 좋다고 인지’ 하는 그룹의 인성 수준이 높음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의 주관적인 성적인지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인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주관적 성적이 낮을 때 여학생의 자신감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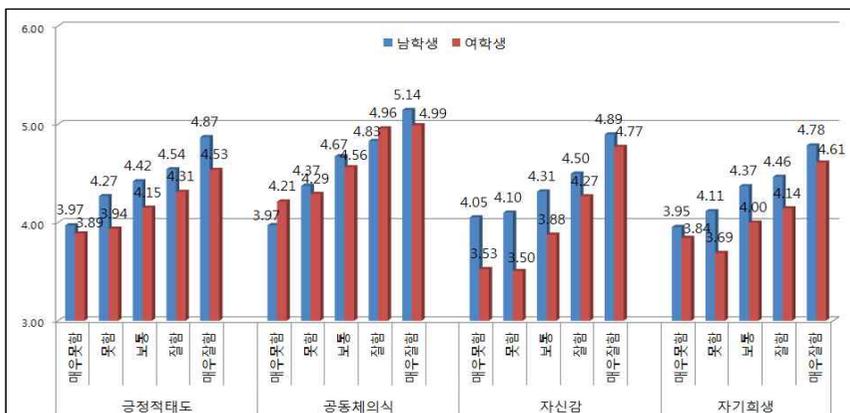


그림 10. 성별과 학생 성적인식수준에 따른 인성의 차이

○ ‘행복감’ 이 높은 그룹이 인성 수준이 높음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의 행복감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행함을 느끼는 그룹은 자신감의 요인과 자기희생 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행복감에 따른 인성 수준이 높았으며 불행함을 느끼는 여학생은 인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11. 성별의 행복인식 수준에 따른 인성의 차이

결론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인성은 고등학생과 남학생의 인성이 높게 나타났다. 참가지역에 따라 인성의 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며 참가빈도는 주3회 이상 참여 학생의 인성 수준이 높았다. 또한 참가기간은 1년 이상 참가 한 학생의 인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참가정도는 ‘매우 열심히 참가’ 한 그룹의 학생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과 여학생의 인성 수준을 올릴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필요하고 학교스포츠클럽에 1년 이상, 매우 열심히 참가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

제 2장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체육복지 요구 조사 및 학교체육복지 방향 설정1)

홍은아²⁾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약

세계적으로 '복지'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한국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복지'가 회자되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수많은 복지 관련 공약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복지가 정책적 주요 안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 증진, 비만 증가, 체력저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폭력 문제 등으로 체육 교과가 재조명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학교체육복지'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체육복지의 개념과 범위 정립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교체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체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체육복지 소외 계층을 범주화하여 각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 이 글의 서론 일부는 홍은아, 김상범(2013)이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4호에 발표한 '학교체육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그 외 내용은 학교체육연구소(2013)의 '신한국형 학교체육모형 개발 및 평가' 2차년도 연차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 2) 홍은아 박사는 스포츠정책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 6월 현재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학교체육복지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I. '복지'와 '학교체육복지'의 등장

세계적으로 '복지'가 이슈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최근 수년간 화두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복지'라 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당을 막론하고 수많은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제시하였으며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 등 5가지의 국정목표를 발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목표와 연결하여 '복지' 강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정목표와 연결한 체육 및 스포츠 분야 비전으로 첫째, 서비스산업 육성(스포츠 산업), 둘째, 맞춤형 스포츠복지, 셋째, 생활 스포츠 활성화, 넷째, 사회통합(다문화), 다섯째, 스포츠 남북교류 및 스포츠 공적원조를 제시하였다³⁾. 다섯 가지 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산업 부문과 스포츠 남북교류 및 스포츠 공적원조 부문을 제외한 세 분야에 '복지'의 개념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맞춤형 스포츠복지와 관련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입한 '국민체력 100(일공공)'을 들 수 있다. '국민체력100' 사업이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체력을 측정, 평가하고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 주는 체육복지 서비스이다. 2011년 성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운영하고 향후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등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http://nfa.sports.re.kr>).

둘째, 생활 스포츠 활성화의 배경에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포츠 활동 제고를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국민행복의 증진을 이룬다는 큰 목표

3) 노태강(2013). 국민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박근혜 정부의 국민체육진흥정책은 무엇인가? 제 51회 체육주간기념 제 32회 국민체육진흥 세미나, 13-18, 서울: 한국체육학회.

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가 있는 삶’ 영위는 곧 문화융성의 기본 과제이며 스포츠는 국민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이다⁴⁾.

셋째, 사회통합 특히 다문화와 관련한 체육정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40만명을 넘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도 5만 6천명에 이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국 문화 개방도는 57개 중 56위를 차지해 문화적, 정신적 쇠국(鎖國) 상태인 것을 나타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활동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새 정부의 체육 분야 국정 목표를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체육 정책 근거에 ‘복지’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복지’의 대상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 비만 감소, 청소년의 체력저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폭력 문제 등의 도구(instrument)로서 체육 교과가 재조명되며 ‘학교체육복지’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개념 설정의 광범위함과 애매함 때문에 ‘학교체육복지’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첫째, 학교체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해 ‘학교체육복지’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둘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체육복지 요구를 조사한 후 셋째, 학교체육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4) 노태강(2013). 국민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박근혜 정부의 국민체육진흥정책은 무엇인가? 제 51회 체육주간기념 제 32회 국민체육진흥 세미나, 13-18, 서울: 한국체육학회.

5) 조선일보(2013.5.3.) 나라 앞날 망칠 눈먼 인종 純血주의

II. 학교체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 정립

세계적으로 '복지'가 이슈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복지'가 회자되고 있다. 이에 체육 분야에서도 학교체육 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체육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델파이 조사

델파이조사는 '한 사람의 두뇌가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친 예측이 보다 정확하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Helmer, 1967). 아직 적절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거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혹은 우편조사를 통해 수차례 걸쳐 피드백을 시켜가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⁶⁾

학교체육복지의 개념이 미 정립된 상황에서 학교체육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델파이 조사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된다. 선정된 학교체육 전문가 명단은 <표 1>과 같다.

6) 이종성(2009).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한 학교체육 전문가 명단

	성명	직위
1	김○○	교육장
2	이○○	중학교 교장
3	안○○	고등학교 교장
4	최○○	고등학교 교장
5	오○○	장학사
6	정○○	교육연구사
7	이○○	교수
8	김○○	교수
9	정○○	교수
10	김○○	교수
11	김○○	고등학교 수석교사
12	이○○	중학교 수석교사
13	진○○	중학교 교사
14	나○○	중학교 교사
15	이○○	고등학교 교사
16	윤○○	중학교 교사
17	서○○	중학교 교사
18	홍○○	체육기관 (전)본부장
19	박○○	방송국 기자

2. 학교체육복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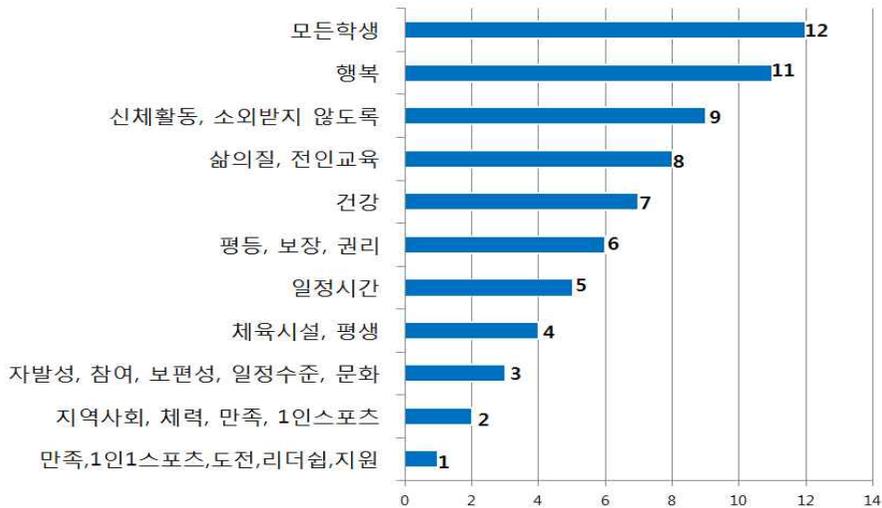
○ 델파이조사 1차 결과

‘학교체육복지’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를 3개 이상 제시하도록 요청한 결과를 분석하여 2회 이상 중복 응답된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보편성, 일정 수준, 행복, 모든 학생, 소외받지 않도록, 1인 1스포츠, 지역사회, 자발성, 만족, 권리, 지원, 문화, 평생(생애전반), 리더십, 협력적), 체육시설, 평등, 체력, 교육, 참여, 보장, 일정 시간, 신체 활동, 건강, 삶의 질, 전인교육(지덕체)

○ 델파이조사 2차 결과

위 27개 단어들을 나열한 후 키워드를 7개 선택하게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게 하였다.



학교체육복지 개념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

○ 델파이조사 3차 결과

조작적 정의 2가지 제시 후 적절성 응답 및 자유 의견 제시 요청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체육복지’ 개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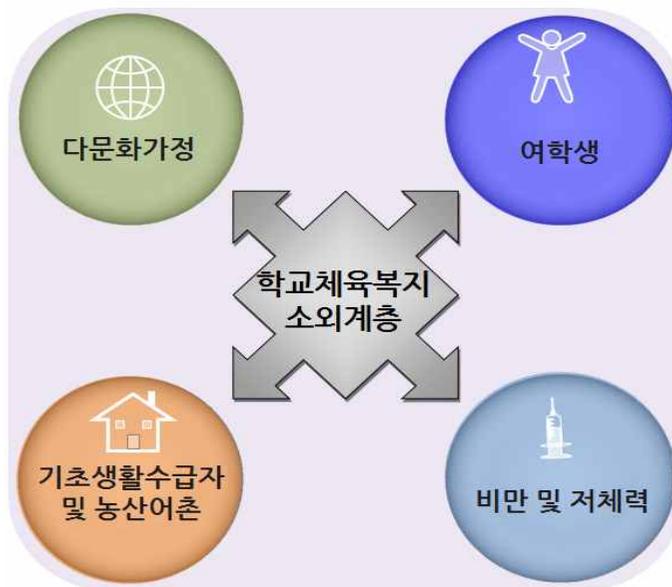
‘학교체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정시간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활동의 장(場)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행복 증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 체육활동의 기반 구축을 의미한다.

3. '학교체육복지'의 범위

델파이조사 1차에서는 현재 학교체육복지 관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집단)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학교체육복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단계로써 범위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류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비만 및 저 체력이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그 다음 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농산어촌, 다문화 가정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복지 구현을 위해 <그림 1> 같이 네 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림 2> 학교체육복지 소외계층 범위



III.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체육복지 요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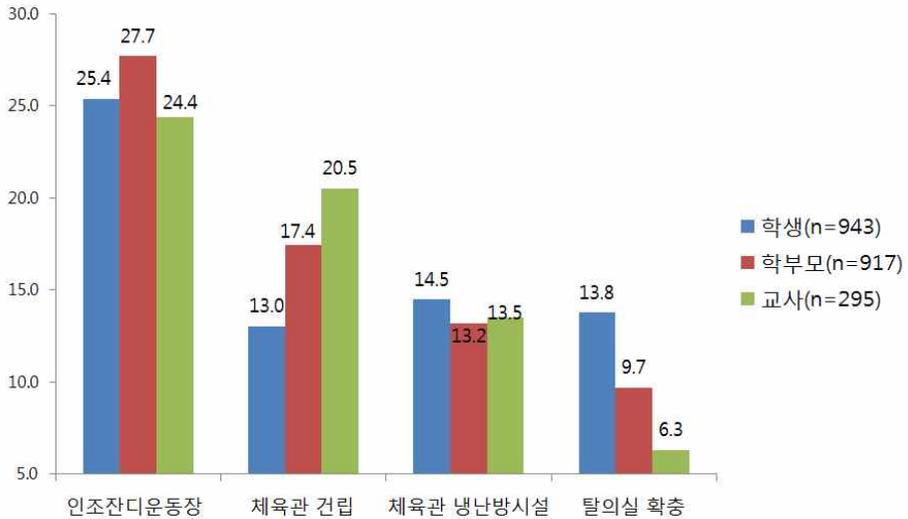
본 연구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체육복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체육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26개교), 중학교(25개교), 고등학교(18개교)의 학생 974명, 학부모 949명, 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리커트 척도(6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조사 결과는 집단별 평균 값 산출 또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유목적적 표집법 및 스노우볼링 표집법을 이용한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학생 974명, 학부모 949명, 교사 303명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22.3%(494명), 중소도시 19.4%(431명), 읍면도서지역 14.2% (315명)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68.4%(662명), 여자 31.6%(306명)이며 중학생 62.2%(602명), 고등학생 37.9%(366명)이다. 학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51.6%(490명), 여자 48.4%(459명)이며 대도시 36.3%(342명), 중소도시 37.7%(355명), 읍, 면, 도서지역 25.9%(244명)이다.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56.8%(172명), 여자 43.2%(131명)이며 학교가 위치한 곳은 대도시 51.3%(155명), 중소도시 25.2%(76명), 읍, 면, 도서지역 23.5%(71명)이다.

교사들의 직위는 초등학교 일반 교사 53.2%(160명), 초등학교 체육교사 1.7%(5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4.3%(13명), 중고등학교 부장 체육교사 9%(27명),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22.6%(68명), 중고등학교 스포츠강사 9.3%(28명)이다. 교사들의 경력은 0~2년 14.1%(41명), 2~5년 12.7%(37명), 5~8년 12.7%(37명), 8~11년 13.4%(39명), 11~15년 11.7%(34명), 15년 이상 35.4%(103명)로 나타났다.

1. 학교체육복지 시설에 대한 요구



시설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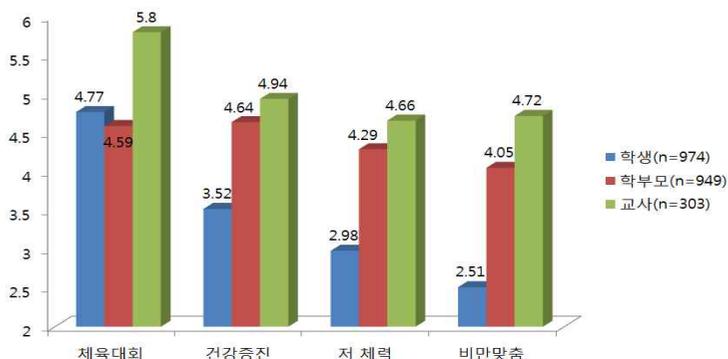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조잔디운동장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은 인조잔디운동장 25.4%, 체육관 냉난방시설 14.5%, 탈의실 확충 13.8% 순으로, 학부모는 인조잔디운동장 27.7%, 체육관 건립 17.4%, 체육관 냉난방시설 13.2% 순으로, 교사는 인조잔디운동장 24.4%, 체육관 건립 20.5%, 체육관 냉난방시설 13.5%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 성별에 따른 요구

여학생은 체육관 냉난방시설(28.1%), 탈의실 확충(19.2%), 인조잔디운동장(14.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인조잔디운동장(31.7%), 수영장 건립(13.9%), 체육관 건립(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실외 체육활동보다 실내 체육활동을 선호하는데서 기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여학생들의 요구 반영과 함께 빈 교실을 이용한 댄스실, 요가실 등 실내 체육시설 설치가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체육 시설 관련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며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인조잔디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건립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간적,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시설 명칭 사용권(naming right)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된 BTL (Build-Transfer-Lease)사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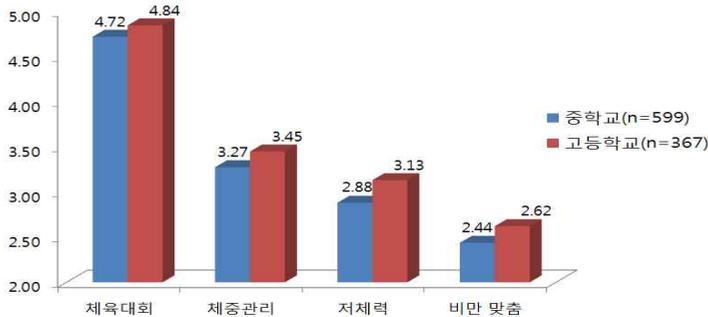
2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체육대회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학부모, 교사보다 현저히 낮았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은 체육대회(4.77점)이며, 그 다음으로 반 대항 구기 대회(4.23점), 건강증진 프로그램(3.52점), 영양, 식단관리 프로그램(3.46점) 순이었다. 학부모들의 경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가장 원했으며(4.64점), 그 다음으로 영양, 식단관리(4.63점), 체육대회(4.59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체육대회를 가장 원했으며(5.08점), 그 다음으로 건강증진(4.94점), 반 대항 구기대회(4.87점), 비만맞춤 프로그램(4.72점)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 급별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중, 고등학생의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 요구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체육대회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체중관리, 저 체력, 비만 맞춤 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중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관점에서는 대학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신체활동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는냐는 질의에 928명 중 '예'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327명(35.2%),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601명(64.8%)으로 나타났다. '예'라고 대답한 학부모 중 296명(91.3%)이 보통 혹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체육복지 회비 지불 여부 및 액수에 대한 부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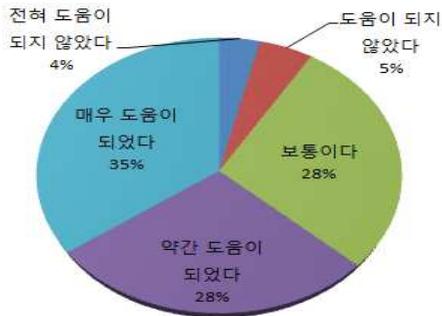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에 회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314명)이었으며 응답자의 62%(522명)는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비를 지불한다고 응답한 학부모 중 75%(234명)는 그 비용이 부담되는 액수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방과 전, 후, 점심시간 및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확대 개설과 내실화는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비만, 저 체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학교폭력 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수익자 부담 정책을 추구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교체육복지 정책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

학부모는 1순위로 학생 건강증진 정책(27.9%), 2순위로 안전, 쾌적한 환경조성(25.1%)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1순위로 안전, 쾌적한 환경조성(38.5%), 2순위로 학생 건강증진 정책(16.6%)을 선호하였다. 이 결과를 정부 차원에서 학교체육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학교체육복지의 효과성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3%(205명)이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9%(28명)에 그쳤다. 향후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688명(75%)이

긍정적(참여시키겠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25명(25%)은 부정적(참여시키지 않겠음)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의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덧붙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도 시급하다. 이는 학부모들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가정에서 아이들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등의 생활 방식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영양 및 식단 강좌 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5. 학교체육복지의 소외계층 분포 현황

응답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인 혹은 자녀가 비만, 저 체력, 요양호자, 기초생활수급,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새터민 가정 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학생 925명 중 58.2%인 538명이 위의 어느 집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저 체력이 238명(44%), 비만 154명(29%), 한 부모 가정 73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936명 중 64.4%인 603명은 위의 어느 집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학부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저 체력이 47%로 가장 많고, 비만(29%), 한 부모 가정(12%), 기초생활수급(7%)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학교체육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당 부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체육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부모, 지역 내 엘리트 선수들의 재능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스포츠키관 및 관련 업체 등에 입찰(bidding) 방식을 적용하여 용역(프로그램 운영)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철저한 모니터링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피드백을 통해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IV. 학교체육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1. 비만 및 저체력 학생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여 비만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⁷⁾. 유소년 비만의 80%는 성인의 비만과 직접 연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2조원으로 추정된다.⁸⁾ 전문가들은 PAPS의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만 및 저체력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만 교실이 라고 부르기 보다는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 과체중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일정 수준 이하의 체력 수준을 가진 체력이 향상 될 때까지 학생들이 특정 프로그램 참가를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OO, 대학교수)

팝스 5등급이라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시상도 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임OO, 고등학교 체육교사)

○ 싱가포르 T.A.F(Trim And Fit) 프로그램

T.A.F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싱가포르 교육부 주관하에 운영되어 소아 비만율을 1992년 14%에서 2005년에 9.3%로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 모든 학교에서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판정 받는 학생은 의무적으로 비만클럽에 가입한 후 정상체중이 되어야만 탈퇴할 수 있게 하였던 프로그램이다. 방학 중에는 체중 조절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캠프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력검사를 실시해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하고 매년 체력지수를 토대로 교육부에서 우수학교를 선정해 표창하여 학생 및 학교의 동기부여를 극대화 하였다.

7) 교육부(2013). 2013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 서울: 교육부.

8) 임희진, 박형란(2009).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지만 비만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낙인찍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 정신적 건강 개념까지 포함한 전인적 건강체계(Holistic Health Framework)를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체계는 비만 아동의 심리적 중압감 및 섭식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저 체중아 또한 포함시키고 있다.⁹⁾ 그 외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2년간 적용된 Nebraska 학교 프로그램¹⁰⁾, 미국계 인디언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적용한 pathways 프로그램¹¹⁾, 2년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중재한 Planet Health 프로그램¹²⁾, 미국의 9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동, 영양 등을 중재한 CATCH(Child and adolescent trial for cardiovascular health) 프로그램¹³⁾ 등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¹⁴⁾

○ 교수 방법 고안

비만, 저 체력 아이들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느끼게 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며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세심함이 요구된다.

교사들이 수업할 때 조 편성부터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아이들한테 조원을 선택하라고 하면 결국 운동을 못 하거나 비만인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소외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학생들이 운동 기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도구, 수업방법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거죠. (윤OO, 중학교 체육 교사)

9) 허윤영, 황진아(2009). 초등학교 비만교육의 실태 및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4(1), 43-54.

10) Pariizakova, J., and Hills, A.(2001). Childhood obesity: prevention and treatment. U.S.: CRS press: pp. 271-276.

11) Caballero, B., Clay, T., Davis, S. M., Ethelbah, B., Rock, B. H., and Lohman, T.(2003). Pathways: a school-bas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the prevention of obesity in American Indian schoolchildren. Am. J. Clin. Nutr., 78, 1030-1038.

12) Gortmaker, S. L., Peterson, K., Wiecha, J., Sobol, A. M., Bixit, S., and Fox, M. K., et al.(1999). Reducing obesity via a school-based interdisciplinary intervention among youth: Planet Health, Arch. Pediatr. Adolesc. Med., 153(4), 409-418.

13) Schmitz, K. H., and Jeffery, R. W.(2002). Prevention of obesity. In: Albert J. Stunkard, editors. Handbook of obesity treatment.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p. 556-593.

14) 고성식(2010). 비만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중학생의 신체구성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3), 169-180.

2. 여학생

교육부¹⁵⁾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을 개설, 남녀 혼성수업 방안 및 스포츠강사 선발 시 댄스, 무용 전공자를 확보하는 방안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유연성 있는 규칙, 장비, 시설 및 평가 방법 적용을 제시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풋살을 할 때 .6명 중에 반드시 2명은 여학생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또 여학생들은 손으로 공을 잡아 던져도 된다는 등의 규칙 변화를 주기도 하구요. 이렇게 하면 남학생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거죠. (조OO, 초등학교 교사)

배드민턴을 할 때 네트 높이나 라켓의 길이를 조정하고 셔틀콕 속도를 다양화 해보았어요. 라켓길이를 짧게 하면 서브가 더 잘 들어가고 결국 여학생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 배드민턴 동아리 반도 여학생들 중심으로 더 활성화 되었구요.(윤OO, 중학교 체육교사).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남학생들의 점유로 인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제약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탈의실의 부족 현상 역시 감소성 높은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더욱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시설을 남학생이 점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학생과 남학생이 1대1 비율로 시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절실해요. 또 탈의시설 확충, 여자 체육교사 및 여지도자 파견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이OO, 고등학교 체육교사).

15) 교육부(2013). 2013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 서울: 교육부.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농산어촌 가정

스포츠 바우처 사업 예산은 2011년 86억 원에서 2012년 106억 원으로 증가, 스포츠 관람 바우처 예산은 2012년 21억 원에서 2012년 2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스포츠바우처 시설 유형의 다양화, 아동 및 청소년 성별 활용도 제고, 지역적 편중 개선 등이 필요하다.¹⁶⁾ 특히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이 더욱 소외를 느끼기 쉬운 방학 기간에 학교체육복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무료 수강권을 지급해야 해요. 방학 중 스포츠 활동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OO, 중학교 체육교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소득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포츠 바우처 정책은 아동,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능동적인 조직 시민성과 의식을 함양한 유능한 사회구성원을 배출하는 시초가 된다¹⁷⁾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 가정 자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6년 9,389명, 2007년 14,654명, 2010년 31,78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6,943명을 기록하고 있다.¹⁸⁾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외국 문화 개방도는 57개 중 56위를 차지해 여전히 정신적, 문화적으로 폐쇄성이 높은 상태인 것을 나타낸다.¹⁹⁾ 이는 어릴 때부터 가정 및 학교에서 다

16) 이기봉, 권순용, 박일혁(201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 윤정옥, 문용, 주성택(2011). 저소득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스포츠바우처 참가와 셀프리더십 간에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50(6), 75-89.

18) 교육과학기술부(2012).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19)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2013) www.imd.org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아직 뿌리박혀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종적인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되기 쉽다고 봐요.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한데 어울려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일반학생들에게도 다문화 학생들과 더불어 운동해야하는 필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박OO, 스포츠 기자)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 프로그램 구성할 때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하여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겠지요. 또한 해당 학생의 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를 선택하여 그 학생을 중심으로 다른 문화의 스포츠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자연스럽게 아이들 모두가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죠(진OO, 중학교 체육교사).

다문화 가정 관련 이슈는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학교라는 울타리 내·외에서 어떻게 포용, 흡수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굳이 2005년 프랑스에서 차별과 실업문제로 극심한 소외를 느낀 북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의 폭동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은 시급한 문제다.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유럽,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체육정책을 적극 전개해야 하겠다.²⁰⁾

결론적으로 학교체육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만 및 저 체력 학생을 위한 정책은 단·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저 체력 및 비만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외형적인 '체중감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양하며 전문가와의 심리적, 정서적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하는데 교사들의

20) 권민혁(2008). 다문화사회에서의 체육정책 방향. 스포츠과학, 8(summer), 1-8.

역량과 끊임없는 교수방법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방학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 거주 학생들이 더욱 소외를 느끼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학 중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복지관 및 공공기관)와 연계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스포츠 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직접 사업신청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²¹⁾

넷째,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 패러다임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개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체육 현장에서 어릴 때부터 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이 어울리며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전략을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21) 이기봉, 권순용, 박일혁(201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3장 학생선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이양구*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약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 있어서 일반전형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문 내신 또는 학업성적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있어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와 학업능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신분인 이들에게도 학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aaty(1982)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량적 접근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선수의 학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평가요소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이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학생선수의 학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학습권 보장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여부 및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획되어졌다.

* 이 글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2013)의 '신한국형 학교체육모형 개발 및 평가' 2차년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 이양구 박사는 체육측정평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역량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특기자 관리 및 입학 전형 경험이 있는 관계자 분들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유관기관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3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여부 및 현실 적합성에 대해 질의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응답된 내용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 3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패널의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델파이 1차와 2차 내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출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계층화(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화(AHP) 분석 방법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에, Saaty(1982)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량적 접근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 체육특기자 제도와 학습역량 연계의 필요성

현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는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지닌 학생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최근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학습권 보장제 운행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학생선수들의 입학전형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는 전혀 근절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가 유발하는 문제는 학생선수의 대회 성적(실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며, 학생선수들 역시도 운동만 잘하면 자신이 원하

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수업결손으로 인한 성적저하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시켜 학생선수의 학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II. 체육특기자 제도와 학습역량 연계 방안

현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서 학생선수의 학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계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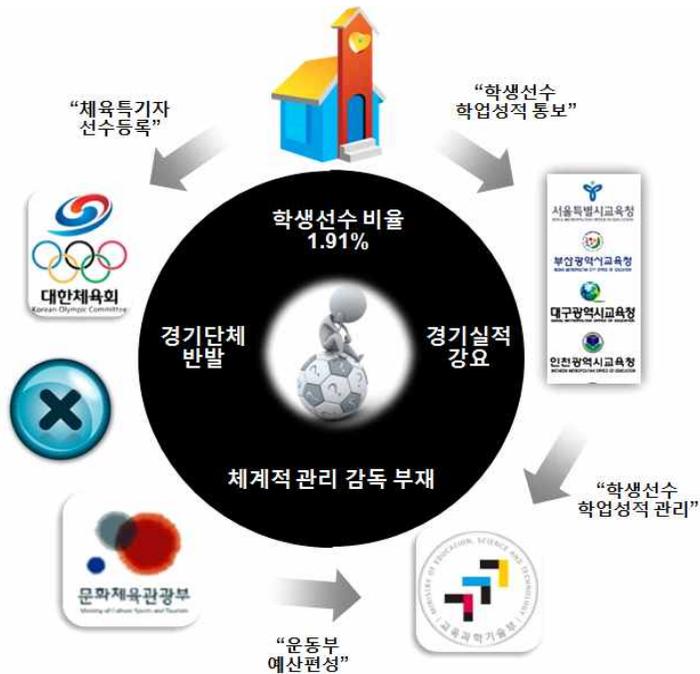
1.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 운영 실태

현재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운동부 육성 학교, 시·도교육청 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시·도간 과열경쟁 구도 하에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 속에서도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74개 종목) 소속 감독·코치간의 합의를 통해 선발되어지고 있으며, 인기·비인기 종목 및 우수 선수·비우수 선수에 따라 드래프트제도(스카우트)가 다르게 운영되어지고 있다.

학생선수의 신분은 선수이기에 앞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학교생활과 정규수업참여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개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종목의 연습으로 대부분의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선수들은 졸업 후 체육 또는 일반분야에서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여 사회 진출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교육의 가치와 시기

를 놓쳐버린 이들의 현실이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학생선수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부 육성학교,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간의 암묵적인 타협으로 빚어진 결과로 보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구성원들간의 합의는 학생선수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학습권보다도 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시간 확보와 그 결과물로서 대회입상실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지원 시스템

학생선수들은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의 시기로서 학업과 훈련의 모든 일정을 운동부 담당 지도자로부터 강요받고, 능동적이기 보다는 이들에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학교가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이라는 사명을 보류한 채 교육 외적인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실정이어서 정작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책임져야 할 본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이 빈번한 각종 경기대회 출전과 과도한 훈련으로 수업결손이 잦아짐으로써 기초교육의 결여와 학력저하 현상, 교과 내용 이해도 부족 등과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보통의 인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개인의 인생설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에 따라 운동부 육성 학교나 교육청 및 시·도 단위를 평가하게 만드는 동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생선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평가요소 확대

학생선수가 상급학교로 진학시 학업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학습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초·중·고별,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를 면밀히 분석 후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표준안(모델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서 요구하는 입상실적 평가 비중을 줄이고 학업성적 반영 비중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전국 체육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가 학생선수의 학습역량과 운동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대표적 기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학교의 경우, 선발전형요소로 전문기능검사(입상실적) 및 적성 50%, 체력 25%, 내신성적 25%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되어진 학생들 대부분은 최고의 경기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업성적을 포함한 내신관리에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 있어서도 일반전형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문 내신 또는 학업성적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 학업능력을 평가요소로 포함시켜 학생선수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중심의 제도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생선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평가요소 제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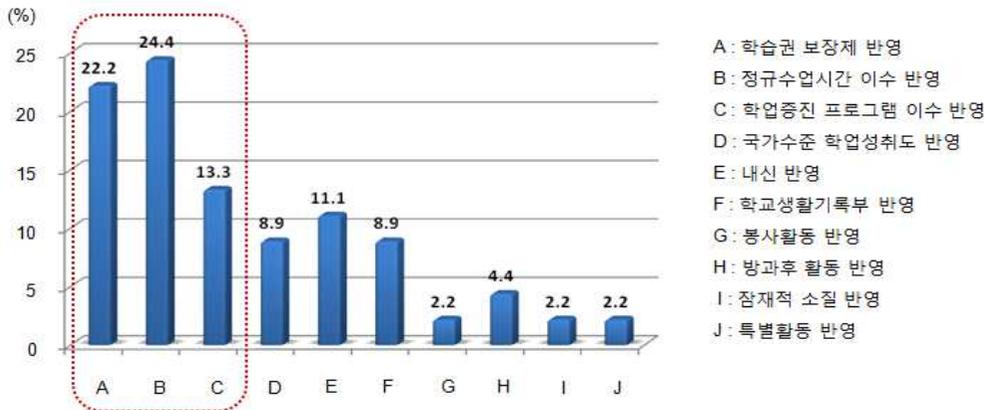
- ▶ 학습권 보장제 반영 (최저학력 기준: 초 50%, 중 40%, 고 30%)
- ▶ 정규수업시간 이수 반영 (수업일수 220일 기준 147일(2/3) 이수 등)
- ▶ 학업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수여부 반영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반영 (기초학력 이상)
- ▶ 내신 반영 (학업성적, 출석률 등)
-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 봉사활동 반영 (스포츠 자원봉사: 1년 10시간 이상 등)
- ▶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키는 방과 후 활동 반영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동호회 활동 등)
- ▶ 잠재적 소질 반영 (한자검정, 컴퓨터 활용능력 등)
- ▶ 특별활동 반영 (예: 총점 12점 기준 / 학년당 4점 등)
 - 학급활동 우수자 (정·부회장(반장), 학급활동 유공자 등)
 - 학교활동 우수자 (학생회 간부, 학교내외 행사 유공자 등)
 - 특별활동 우수자 (교내외 특별활동 우수자 등)

요약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있어서 현존하는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 내에 학업능력 영역이 연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신분인 이들에게도 학습역량이 자신들의 진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제도 연계에 필요한 중요 평가요소 선정

학생선수의 학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제도의 평가요소에 학습역량과 관련된 항목을 반영시켜는 것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체육특기자 관리 및 입학 전형 경험이 있는 관계자 15명을 패널로 구

성하여, 이들에게 제시되어진 평가요소(10개) 가운데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학업능력 평가요소 3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선수 학업능력 평가요소 우선순위 결과 (%)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 반영되어야 할 평가요소 중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학생선수의 정규수업시간 이수를 반영’이었다.

또한, 현행 적용되어지고 있는 ‘학습권 보장제’와 학습권 보장제에서 제시한 ‘학업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수여부’를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 내 평가요소로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제도 연계에 필요한 중요 평가요소가 지닌 강·약점 탐색

전문가들은 앞서 선정된 평가요소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질 경우 선택한 평가요소가 지닌 강점과 약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선정된 학업능력 평가요소가 지닌 '강점' 탐색

「 정규수업시간 이수 반영 (수업일수 220일 기준 147일(2/3) 이수 등) 」

- ▶ 학습권 보장제 적용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외에 모든 과목을 균형적으로 이수하게 됨으로써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음
- ▶ 학습권 보장제의 취지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있으므로 시합출전, 강화훈련에 따른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기초학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음
- ▶ 일반학생들과 함께할 기회 증대로 학생선수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음

「 학습권 보장제 반영 (최저학력 기준: 초 50%, 중 40%, 고 30%) 」

- ▶ 학생선수와 감독(코치), 교사, 학부모에게 학업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음
- ▶ 학습권 보장제는 장기적으로 학습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음
- ▶ 학습권 보장제 반영을 통해 학교스포츠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 학교체육진흥법에 규정한 학습권 보장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학생선수 이전에 학생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음
- ▶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한 학교 및 개인 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학업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수여부 반영 」

- ▶ 학생선수가 학교 졸업 후 운동을 계속 하지 못 할 경우, 학업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수를 통한 기초학력 배양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임
- ▶ 기초학력이 부족한 교과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음
- ▶ 최저학력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미달 및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부작용 없이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 학력증진 및 학습태도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학습능력이 뒤쳐지는 학생선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나. 선정된 학업능력 평가요소가 지닌 '약점' 탐색

「 정규수업시간 이수 반영 (수업일수 220일 기준 147일(2/3) 이수 등) 」

- ▶ 수업일수 2/3 미충족 시 진학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음
- ▶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에게 시간적, 정신적으로 부담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기초학력 증진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일부 종목의 경우 운동 시간부족으로 인한 경기력이 저하 될 수도 있음
- ▶ 학생선수의 수업보다 경기 실적을 중요시하는 학교라면 학교 차원에서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 질적인 측면에서 학업 성취도 달성을 위한 실제 수업 참여가 이루어질지가 우려되므로 학습권 보장제와 더불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 수업 참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임

「 학습권 보장제 반영 (최저학력 기준: 초 50%, 중 40%, 고 30%) 」

- ▶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는데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 제한된 운동시간, 경기능력 약화에 따른 엘리트 체육의 성장 저하, 학업능력에 따른 운동포기자들의 이탈 및 부적응 문제 유발, 학부모들의 학습권 증가와 운동 시간 감소에 따른 불만이 증가할 수 있음
- ▶ 기준 미충족 시 진학 제한의 경우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 발굴 육성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 ▶ 특목고, 자사고 등 학력수준이 우수한 학교에서의 학생선수나 선천적으로 학습능력이 뒤쳐지는 학생선수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 학습권 보장제의 제지를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학업활동으로 인해 부족한 운동량을 새벽이나 야간 훈련 등으로 보충하려 한다면 학생선수들이 더욱 혹사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

「 학업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수여부 반영 」

- ▶ 각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선수들을 위한 **변칙적 학사운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기초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우 학습권 보장제와 연관되어 반영 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학습권 보장제의 의도를 변질 시킬 수 있음에 학업증진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강사 지원, 예산반영 등 실효적인 지원책이 없을 경우 형식적인 이수에 그칠 수 있음

IV. 학생선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에게 주지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해당하는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 일부 종목의 학생선수가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발생된 원인은 학교가 학생이 공부하고자하는 영역(전문적인 운동선수로서의 체육활동)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하는 주된 영역은 해당종목의 전문적인 스포츠활동이고 이 활동은 학생선수들의 미래의 직업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어야 할 것이며, 민주시민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인간관계, 도덕성, 사회제도, 교양 등)과 함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1. 학생선수 '학습부진 점검' 강화

운동부 육성 학교에서는 학생선수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회출전과 방과 후 운동, 보충학습을 병행하는 학

생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학생선수의 운동부 입문단계에서부터의 기초학습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학습 저해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수업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생선수를 위한 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지원

학생선수들이 출전하는 대부분의 대회는 일부종목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어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화되고 있다.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선수들의 대회출전과 관련하여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을 실시해주는 학교가 많지 않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선수들에게 보충수업을 제공해도 형식적인 수업 진행이 대부분이다.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선수의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하고 성적부진 학생선수의 학습상황 기록표 등 누적된 학습관련 정보를 해당 운동부담당 교사(감독, 코치),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업수준을 고려한 학습지도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지원 」

- ▶ 대학생 멘토링제 지원
- ▶ 학생 학습도우미(또래친구, 선배) 지원
- ▶ 학부모 등을 활용한 보충학습 지원

「 멘토들과의 연계와 협력 (인센티브 제공 등) 」

- ▶ 인근 대학의 대학생
- ▶ 봉사학점이 필요한 학생 (중·고·대)
- ▶ 학생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

- ▶ 교과지도 외 운동부 자체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습방법 체계화 등)
-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3. '학력증진 운동부 우수학교' 발굴 및 포상

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실천 우수사례와 같이 학교 및 운동부 담당 교사(지도자) 등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방안이다.

운동부 육성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선수들에게 학업성취 동기 부여를 위한 단위 학교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생선수들의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생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이수율과 학업에 충실성(내신, 학교생활, 봉사활동 등)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운동부 육성학교에서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 및 학생선수의 학업능력을 동시에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시·도별 학생선수 '기초학력 프로그램 연계 및 활용'

운동부 육성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대학, 지자체, 체육회 등)가 협력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단위학교별 학습프로그램의 부족함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시·도별 학생선수 기초학력 프로그램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교과부 자료, 2012).

▣ 지역별 기초학력 프로그램 실시 현황 (학교별)

시도	학교조치
서울	- 학교단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 참여, 동행프로젝트 활용 숙제 도와주기, 공부방 학습지원등 실시
부산	- 담임 보충지도 및 학생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 등 학교자체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구	- 시합으로 인한 학습 결손 시 보충학습 실시 - 담임교사 주도 책임지도제 실시
인천	- 운동부 방과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대교, 응진 썩크유, 능률교육) - 자기주도 학습 및 복습지도
광주	- 단위학교 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전	-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 후 학교 수업지도 - 단위학교 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울산	- 학습지/EBS 활용 가정학습 -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기	- 담임교사 책임 방과 후 보충 학습 지도, 학생 학습도우미 운영, 기초학력 증진반 운영,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한 과제물제출(수업결손조치사항)
강원	- 또래학습도우미의 과외시간 보장, 학력증진을 위한 기초반 운영, 학기 및 방학 중 담임교사 보충지도
충북	- 담임교사 보충지도 및 학습지 활용, 학생 학습도우미 운영 등
충남	- 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특별 보충과정 운영
전북	- 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방과 후 학력증진프로그램 60시간 운영
전남	- 교과별 필수 항목 추출지도 및 기초 기본학급 편성지도, 학생학습 도우미, 결손 수업 보충학습 실시
경북	- 수준별 방과 후 교과 수업, 방학과제물 부여, 보충수업 실시, 학력 튼튼 캠프, 인턴교사 활용 보충수업, 대학생 멘토링, 사이버 수업 등
경남	- 미 도달 교과 보충지도, 방과 후 담임교사와 보충학습, 인턴교사 활용 지도
제주	- 과목별 특별 보충학습 실시, 방학중 대학생 멘토링 실시, 사이버 학습, 학생 학습도우미 운영 등

■ 지역별 기초학력 프로그램 실시 현황 (교육청별)

시도	교육청 조치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동행(동생행복 도우미) 프로젝트 운영 - 전반기 학교운동부 컨설팅 실시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기본방향에 관련 규정 명시, 체육부장 연수를 통한 규정 안내, 단위학교별 방과후 학교 운영, 운동선수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 학교 방문 컨설팅 실시, 정상수업 이수 의무화 지속 추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추진상황 점검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학력향상을 위한 인터넷 화상 수업 지원 - 방과후 미도달 과목 지도 권장 및 점검실시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계획 안내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방과 후 멘토링제를 위한 강사 지원 - 교육지원청 단위 학기별 현장점검 실시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학력증진을 위한 학습 길라잡이 제작·배부 - 특별학급 운영 경비 지원 - 2학기 중간고사 후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조치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제출 시행계획 점검 및 자기주도적 보충학습 실시 권장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권장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출전으로 인해 수업결손 시 익일 담임교사 입장지도(아침시간 활용) - 방학 중 대학생 멘토링 실시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비 지원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계획 안내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증진프로그램 안내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조치사항 지도 점검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지도 철저 안내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V.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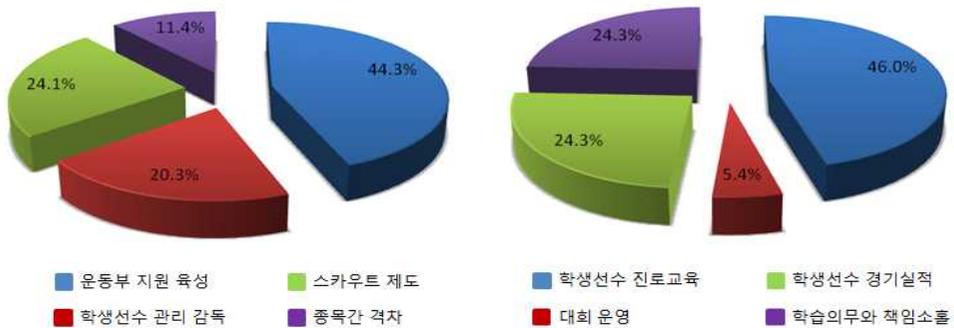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여부 및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통한 4개 하위 항목별 요소의 적합성과 변화 우선순위를 검증해 보고자 계층화(AHP)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1.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탐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 관련된 2개 분야의 하위 8개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문제가 학습권 문제 보다 약간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 필요(46.0%), 운동부 지원 육성(44.3%), 경기실적 위주의 선발(24.3%), 학생으로서의 학습의무와 책임소홀(24.3%) 순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학습권 보장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구체적 제도 장치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도적 문제점 우선순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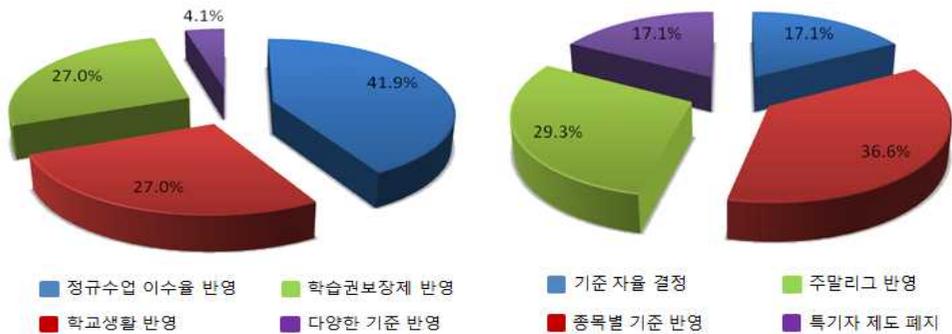
학습권 문제점 우선순위 결과 (%)

2.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지원 자격 개선방안 탐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지원 자격 개선방안과 관련된 2개 분야의 하위 8개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학업능력 반영이 체육특기자 자격 기준 확대 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지원 자격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이수(41.9%), 학교생활 반영(27.0%), 학습권 보장제 반영(27.0%)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원 자격에 있어서 경기실적을 올리기 위해 훈련에만 매진하게 만드는 현 제도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학생선수의 학업능력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업능력반영 개선 우선순위 결과 (%) 자격기준확대 개선 우선순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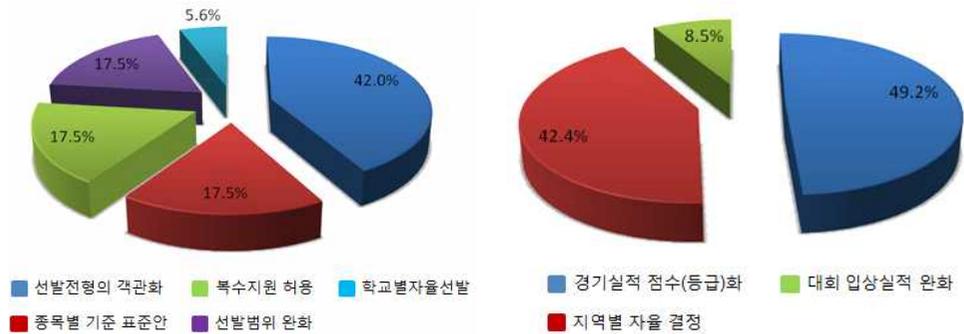
3.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선발범위 개선방안 탐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선발범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2개 분야의 하위 8개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선발범위 기준 개선이 경기력 평가기준 개선 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선발범위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별 상

대적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선발전형의 객관화(42.0%), 경기실적 점수(등급)화(49.2%), 지역별 자율결정(42.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발범위에 있어서 선발범위에서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경기실적 즉, 메달 색깔만을 중요 요소로만 보고 있는 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선발범위기준 개선 우선순위 결과 (%) 경기력평가기준 개선 우선순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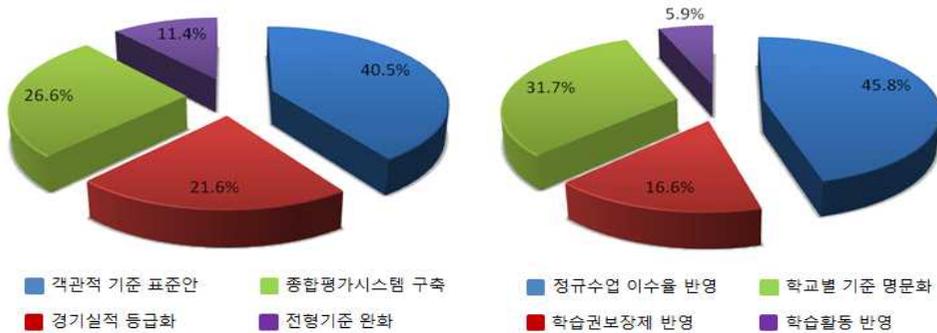
4.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선발전형 방법 개선방안 탐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선발전형 방법 개선방안과 관련된 2개 분야의 하위 8개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 기준 마련이 선발전형 기준 마련 보다 약간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선발전형 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정규수업 이수율 반영(45.9%), 객관적 선발전형 기준 표준안(42.1%), 학교별 기준 명문화(31.8%)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발전형 방법에 있어서 학습권 보장제가 추구하고 있는 최저학력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규수업 이수율을 반영하여 학생선수의 심

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선발 전형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발전형기준 개선 우선순위 결과 (%) 학업성취기준 개선 우선순위 결과 (%)

VI.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향후 방안과 과제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는 우수한 자질이 있는 학생선수에게 초·중등학교에 이르는 우수선수의 연계적 양성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유능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최근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학습권 보장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학생선수들의 입학전형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는 전혀 근절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경기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는 동 제도에서 학생선수의 학습역량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선수 학습역량 평가요소'는 현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에서 학생선수의 학업능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음에 학생신분인 이들에게 학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

둘째,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은 현행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대상임을 고려할 때, 교육적 적합성을 인지시키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4장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실태와 향후 과제*

권민정**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약

최근 교육계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정책들이 수립 및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내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추세,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은 여전히 학교 운동부 코치에 의해 협소한 범위와 내용에 의한 ‘상담’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인식 또한 긍정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현재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내용은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졸업 후 또는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다. 이는 현재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한계임과 동시에 향후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방향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터하여 향후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2013)의 ‘신한국형 학교체육모형 개발 및 평가’ 2차년도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권민정 박사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2년 8월까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를 전담하였고, 2013년 6월 현재에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생선수 진로 설계’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I. 학생선수 진로교육은 왜 필요한가?

1. 우리사회의 요구: 진로교육의 중요성 강조 및 실천 강화

최근 정부에서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을 발표하면서 획일적인 학력 경쟁을 탈피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차원적인 역량 계발을 지원하는 교육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교육부, 2013). 특히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국정과제 69-5)’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 및 선택의 기회 마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 ✓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역량 강화

첫째,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부분이다.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진로정보포털(커리어 넷)을 활용한 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13년 현재 84%인 배치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진로심리검사 6종 및 스마트상담 앱(App)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시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노력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 외에도 그동안 중학교 위주의 진로활동 체험 및 관련 기록을 벗어나 초등학교의 진로활동과 특성 기록을 중학교에서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심층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¹⁾ 또한 2013년 4월부터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1)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2013년 9월).

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써 「자유학기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시도도 눈에 띈다. 이는 ‘진로수업-검사-상담-진로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활동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취지이다.

둘째,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역량 강화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일반 교과를 통해서도 진로와 직업 이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지원, 「진로와 직업」교과 편성 확대, 에듀팍을 활용하여 개인별 진로 포트폴리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은 진로교육이 통합교과 차원에서 실행될 필요성을 강조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지역 단체·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업체험매칭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직업체험매칭 시스템은 시·도교육청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약 132만명을 지원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직업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기관 인증, 자치단체 지원 등을 법제화 하는 「진로교육법」을 금년(2013년) 상반기에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정과제의 내용은 과거와 달리 진로교육 또한 특정 분야로 한정된 범위와 내용만을 토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함과 동시에 진로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선수 진로교육은 그동안 일반 진로교육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학생선수로서의 진로의 개념 및 범위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학교운동부를 담당하는 종목별 코치에 의해 개별적 상담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생선수로서의 진로의 개념과 범위, 성공과 실패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생선수의 본분 찾기와 평생 진로의 경험이 중요

일단 학생선수는 학생 본분과 선수 본분을 모두 지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하는 어려운 개념이라 생각해요. 학생으로서의 진로랑 선수로서의 진로랑 동시에 생각하면서 본인이 어떤 삶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라 생각해요. 지금처럼 축구부 애들은 프로축구 선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A교사, 포커스그룹 면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선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내포한 개념 정립 및 공유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이 전문적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만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선수로서의 진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선수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선수로서의 본분이 융합된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학생선수 진로의 개념 또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글쎄.. 개네들이 결국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도 무엇을 하든 잘 살 수 있어야 진로선택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중략)...중고등학교에서는 당장 진학이나 프로팀 입단이 최고 이슈죠. 그런데 운동선수 진로는 수명이 짧잖아요. 은퇴하고 할 것 없어 막막하면 안되죠. 학교, 프로팀, 실업팀, 직장, 은퇴 후까지 개네들의 삶 전체를 봐야죠(B교사, 포커스그룹 면담).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진학 및 졸업 직후 직업 선택과 같이 단기적 진로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만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운동 중단 및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선수 진로의 범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진학 및 실업팀/프로팀에 대한 입단 경험 뿐 아니라 운동 중단 또는 은퇴 후까지의 평생 삶의 범위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생선수로서의 진로는 과정+결과 모두 중요

진로 측면에서도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경기성적이 곧 성공이나 실패였어요. 특히 코치들요. 학창시절 선수 경험이 나중에 자기들 삶에서 좋은 기억으로 떠오르면 성공이라고 봐요. 그런데, 괜히 시간낭비 했다. 운동하느라 직업도 안잡히고 어찌고 나쁘게 기억되면 실패죠(C교사, 포커스그룹 면담).

현재 학생선수로서의 진로에서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학생의 본분이 제외된 선수로서의 진로에서만 판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 내에서만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게 될 경우 그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및 선수로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경험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학생선수로서의 경험이 진학 및 직업 선택 과정에서 뿐 아니라 향후 운동 중단이나 은퇴 후의 삶에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당위성

: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한 의도적·체계적 교육이 필요

학생선수 모두가 나이 들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 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해요. 그게 성공이죠. 학창시절 공부경험, 운동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고 좋다는 생각이 들도록...(중략)...계획 짜서 제대로 교육해야죠. 그래야 방법을 알고, 효과가 크죠(Y교사, 개인 심층면담).

앞서 제시한 논의로 볼 때, 학생선수 진로교육은 학생선수로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한 성공의 의미를 의도적·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생선수로서의 긍정적 경험을 증가시키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측면의 교육을 위해 학생선수 진로교육은 필요하다.

II. 현재 우리나라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실태는?)

- 진로개발 역량, 진로활동 실태, 진로교육 인식 살펴보기

학생선수 진로교육 실태 및 교육주체 및 수요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학교와 체육계열 학교 운동부의 학생선수, 운동부 감독교사 및 코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6점 척도)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집단별 평균값 산출 또는 빈도분석으로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실태를 해석하였다.

1. 학생선수의 진로개발 역량

학생선수의 진로개발 역량은 크게 자기이해 역량, 진로정보탐색 역량, 진로의사결정 역량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균값 산출을 통해 학교유형별, 학교급별, 종목별로 비교한 후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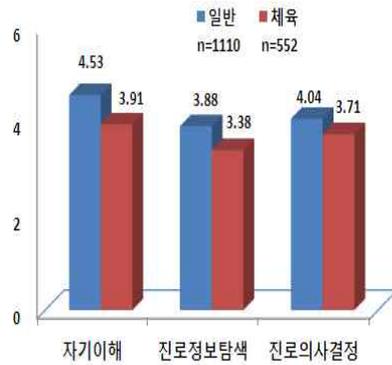
- ▶ **자기이해:**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어울리는 전공이나 직업의 문항
- ▶ **진로정보탐색:** 진학/취업/희망 학교(전공)/희망 직업/유망 전공 및 직업 정보 문항
- ▶ **진로의사결정:** 의사결정 종류 및 방법,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 이해, 진로의사결정시 고려 사항/도움 방법, 진로의사결정 후 실행 방법 문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개의 역량 모두에서 일반학교가 체육계열 학교보다,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진로의사결정 제외),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학생선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어울리는 진로 분야에 대해 판단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의 운동부나 단체종목에 소속되는 등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속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

2) 본 장에서 진술된 내용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2013)의 2차년도 연차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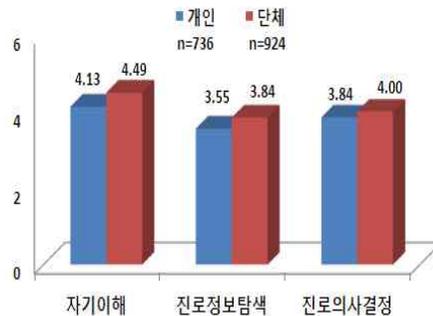
특히 학교급별 역량의 차이에서 자기이해와 진로정보탐색의 경우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차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전문 운동선수 외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맥락이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선수 대상 진로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실시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생선수 진로개발 역량(학교유형별 비교)



학생선수 진로개발 역량(학교급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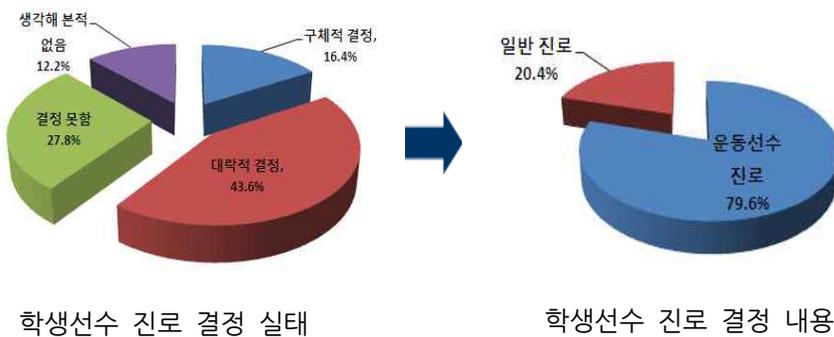


학생선수 진로개발 역량(종목유형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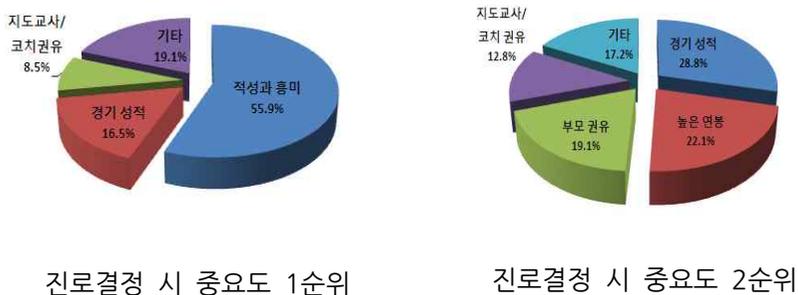
2. 학생선수의 진로활동 실태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졸업 후 진로 결정 실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이 아직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대략적 결정(43.6%)’ 이나 ‘결정 못함(27.8%)’ 을 높게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했거나 대략적으로 결정한 학생들이 어떠한 분야의 진로를 결정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6%가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로 응답하여 일반적인 진로인 2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시 중요도 순위에 대해서는 1순위로 ‘본인의 적성과 흥미(55.9%)’ 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경기성적(28.8%)’ 과 ‘높은 연봉(22.1)’ 순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선수들은 진로 결정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같은 내적동기 측면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학에 필요한 경기성적이거나 자신의 직업(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봉 등의 외적 동기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진로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순위로 ‘부모 (53.7%)’, 2순위로 ‘지도교사와 코치(46.7%)’ 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타자는 ‘부모’ 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생선수 진로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도교사와 코치가 2순위로 나타나긴 했으나, 초·중·고 학생선수들에게 이들의 영향력 또한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와 코치들의 진로교육 관련 인식 개선과 실제적인 교육 활동은 상당히 큰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 시 영향력 1순위



진로결정 시 영향력 2순위

평소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방식에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지도교사와 코치(1순위, 28.7%/2순위 28.6%)’ 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진로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 부모 뿐 아니라 지도교사와 코치의 영향력 또한 크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생선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이 높은 주요 타자로는 지도교사 및 코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진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교사 및 코치가 학생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진로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도교사 및 코치와 학생선수간 교류되는 진로정보(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로관련 정보수집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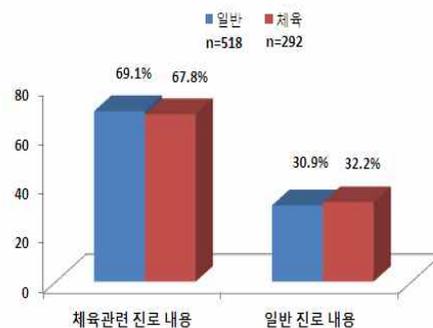
진로관련 정보수집 2순위

진로교육 경험에서는 체육계열 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경험을 소유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체육계열 학생의 경우 52.8%가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53.4%가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계열 학생의 경우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종목의 훈련에 사용하거나 코치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담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곧 진로교육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경험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육계열 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주로 체육관련 진로 내용을 교육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경험 내용

즉, 체육계열 학생의 경우 전체의 67.8%, 일반학생의 경우 69.1%가 체육관련 진로 내용으로 진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진로의 내용은 체육계열 학생이 32.2%, 일반학생이 30.9%로 응답하여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 내용이 체육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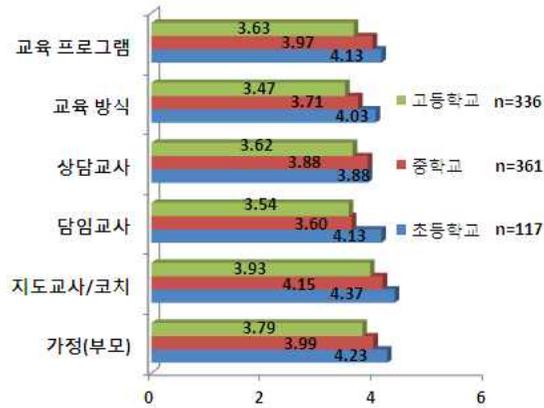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는 수시 ‘대화’ 나 ‘상담’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생선수 진로교육이 일반적인 진로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 터한 진로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학생선수 진로교육’ 에 대한 학생 만족도

‘학생선수 진로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균값 산출을 실시한 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종목별로 비교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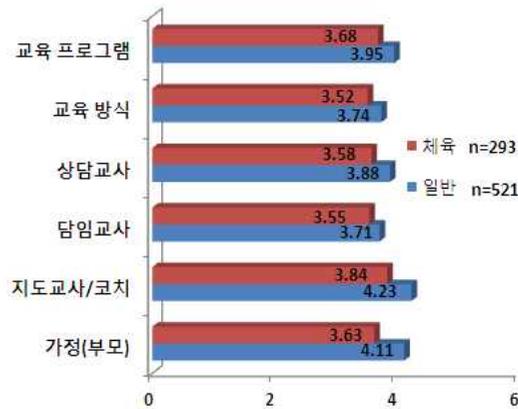
- ▶ 진로교육 프로그램
- ▶ 학교 진로교육의 방식
- ▶ 전문 진로상담교사의 진로교육 방식
- ▶ 담임교사의 진로교육 방식
- ▶ 지도교사/코치의 진로교육 방식
- ▶ 가정(부모)에서의 진로교육 방식

첫째, 학교급별 만족도에서는 5개 문항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1개 문항은 중학교와 동일). 즉, 학생들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의 방식,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지도교사/코치, 가정에서의 진로교육 방식에 대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만족도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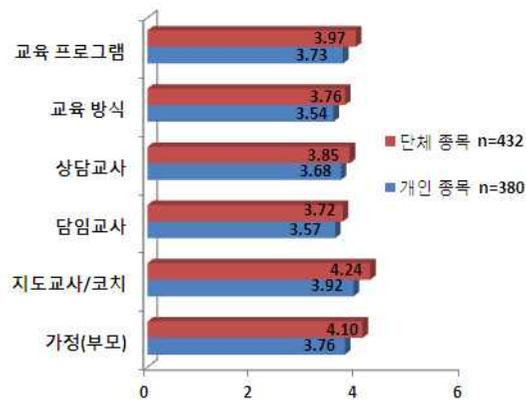
학교급별 진로교육 만족도

둘째, 학교유형별 만족도에서는 6개 문항 모두 일반학교 학생들이 체육계열 학생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즉, 학생들은 일반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경우가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를 고려하는 체육계열 학교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선수들은 일반학생과 더불어 체육 분야 외의 일반적인 진로나 교육 경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선수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식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유형별 진로교육 만족도

셋째, 운동종목별 만족도에서는 6개 문항 모두 단체종목 학생들이 개인종목 학생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단체종목 학생들의 경우 또래와의 대화 기회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 등을 수집 또는 교환하는 기회(시간)가 개인종목 학생들에 비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식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학생선수의 입장에서는 또래와의 교류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종목 학생선수에게도 다양한 진로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또래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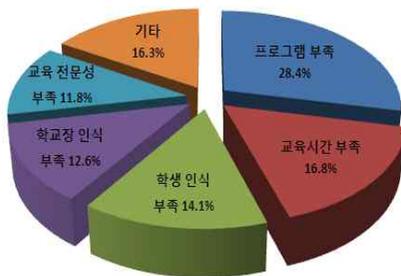


운동종목별 진로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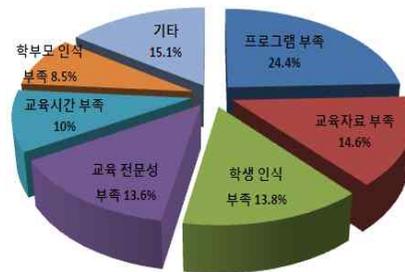
4. ‘학생선수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 지도교사/코치의 인식

‘학생선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선수 진로교육 시 장애요인, 학생선수 진로교육 활성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각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요인으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활성화 요인으로는 진로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장애요인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와 2순위에서 전체의 28.4%가 ‘진로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교육시간 부족’이 16.8%, ‘교육자료 부족’이 14.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결국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선수의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교육할 시간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진로교육 장애요인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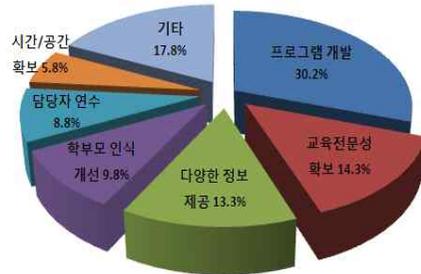
진로교육 장애요인 2순위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전체의 40.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이 24.4%를 나타냈다. 2순위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전체의 30.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교육전문성 확보’가 14.3%를 나타냈다.

여기서 활성화 요인 중 가장 우선순위로 ‘다양한 정보 제공’이 나타난 것은 학부모나 지도교사/코치가 학생선수 대상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진로교육 장애요인에서도 나타났듯이 학부모와 지도교사/코치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교육 활성화 요인 1순위



진로교육 활성화 요인 2순위

5. 체육계열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학생선수 진로경로 추적하기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선수 중 1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진로활동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들 12명에 대해서는 향후 진로교육의 실시와 인식 및 실태 조사를 병행하는 종단연구로 그들의 진로경로를 장기 추적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1차 종단연구 결과 학생선수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저도 그렇긴 한데, 여기 온 애들인 대부분 부모님이나 코치선생님 권유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고민하는 애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간혀있으니까요(학생4, 여)

우리 학교 애들 90%는 OO체육대학교가 꿈이죠. 졸업하고 실업팀 가기도 좋고, 국가대표 되기도 좋으니까요. OO체육대학교 외에는 우리가 하는 운동부 키우는 곳이 별로 없어요(학생1, 남)

별로 아는게 없어요. 3학년 형이나 누나들은 이제 코치선생님하고 이것 저것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린 1학년이라서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그래요(학생7, 남)

- ▶ 특징1: 주요타자의 권유에 의한 수동적인 진로 선택
- ▶ 특징2: 진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긍정-부정으로 양분화
- ▶ 특징3: 진로교육의 경험은 부족
- ▶ 특징4: 상급학교 진학 위주의 상담 방식으로 진로교육 실시
- ▶ 특징5: 성공적 진로모델은 뛰어난 기량의 운동선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종단연구에 참여한 학생선수 대부분이 수동적 의사 결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계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부모님이나 체육교사 또는 운동부 코치의 의견이 학생선수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동적 의사 결정은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최종 선택 과정을 학생선수 스스로 형성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악순환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선수들은 학생선수로서의 진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상을 동시에 보인 점이다. 긍정의 경우에는 학생선수로서의 진로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이며, 현재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며, 진로교육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부정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학생선수로서의 진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흥미가 낮으며, 향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갈등을 하고 있었다. 결국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현재의 진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며, 진로교육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실제적으로 진로교육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점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체육계열 학생의 경우 진로교육을 경험했다는 학생선수들은 전체의 52.8%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종단연구에 참여한 학생선수들은 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 진로교육’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경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보다도 더 낮은 비율로 부족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즉, 학생선수들의 대부분은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상급학교 진학 이외에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의 삶과 연관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경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상급학교 진학 위주의 상담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학생선수들은 대부분 지도교사 또는 코치와의 대화를 토대로 한 상담 위주의 진로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는 일률적 방식의 진행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상담 내용 또한 주로 상급학교 진학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폭넓은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기 어려우며, 경기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특기자 전형에 의한 성공적인 대학 진학이 최상의 진로 목표임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이러한 진로교육 방식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 뿐 아니라 졸업 후 직업 선택과 같은 진로에 대해서도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선수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진로모델은 뛰어난 기량의 운동선수라는 점이다. 앞선 내용과 같이 학생선수들은 그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요 타자에 의한 수동적인 진로 선택을 해 왔으며, 진로교육도 형식적 또는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상담 방식으로 경험해 오며 따라 성공적인 진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기자 전형에 의한 성공적인 대학 진학이 학생선수 진로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뛰어난 운동기능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가 성공적 진로모델이라는 사실이 그리 새롭지 않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로서의 삶이 선수 스스로도 만족스러우며 장기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삶을 성공적인 진로라고 인식하는 학생선수들은 그만큼 인생 선택의 폭이 협소해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운동중단 또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생선수가 인생의 성공이 아닌, 우수한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하는 자발적 진로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Ⅲ.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 교육 환경,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교육주체의 전문성

앞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학생선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 학생선수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진로교육 내용의 체계화, 교육서비스 중심의 학생선수 진로교육 방식 개발, 학생선수 지도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이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이다. 즉, 학교체육의 역할 강조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체육정책 내에서 학생선수 진로교육 관련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의도적 진로교육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정과제로 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진로교사 확충 및 전면 배치, 진로교육법 제정 등과 같은 일반 학생들의 진로교육 강조 추세³⁾에 따라 학생선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선수의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진로교육 내용의 체계화이다. 즉,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학생선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편성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 및 체험을 중시하여 폭넓고 다양한 진로설계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수성은 현재 체육 분야의 진로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체육 분야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스스로 탐색-설계-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학생선수들이 체육 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분야의 진로까지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은 그들의 진로를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게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3) 2013년부터 향후 5개년간 추진할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2013)’에 담긴 ‘진로교육 강화’ 추세 관련 내용이다.



셋째, 교육서비스 중심의 학생선수 진로교육 방식 개발이다. 즉, 학생선수의 눈높이에 적합한 다양한 진로교육 방법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이 부모, 감독교사, 운동부 코치의 관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수동적인 진로 선택으로 인해 단편적인 진로경로의 보편화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적 관점에서 학생선수 진로교육 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생선수 중 능동적인 진로 선택으로 성공적인 진로 경로를 경험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진로교육 방법을 활용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선수 지도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이다. 즉, 감독교사 및 운동부 코치의 기본 소양 교육과 진로교육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학생의 경우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별도 선발 및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로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반면, 학생선수 진로교육은 그동안 ‘공부하는 학생선수’ 정책에 입각하여 학생선수로서의 본분 찾기를 위한 노력을 보여 왔으나 진로교육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기대하기

4) 유정애(2009)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의 개념을 토대로한 교육 방법 활용을 강조하였음.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운동부 코치의 경우 운동선수로서의 진로 경로만을 거치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분야의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소양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활성화와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감독 교사나 운동부 코치와 같은 학생선수 지도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지도교사 연수 또는 운동부 코치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는 대상별 연수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과제는 학생선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고, 능동적인 진로 설계 및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학교체육 정책

저자: 차은주, 홍은아, 이양구, 권민정

발행	2013년 6월 15일
발행처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연락처	전화 02) 820 - 6371 팩스 02) 812 - 0740
홈페이지	http://pelab.cau.ac.kr/
인쇄	유일문화사
